# 화살

1959년 (101)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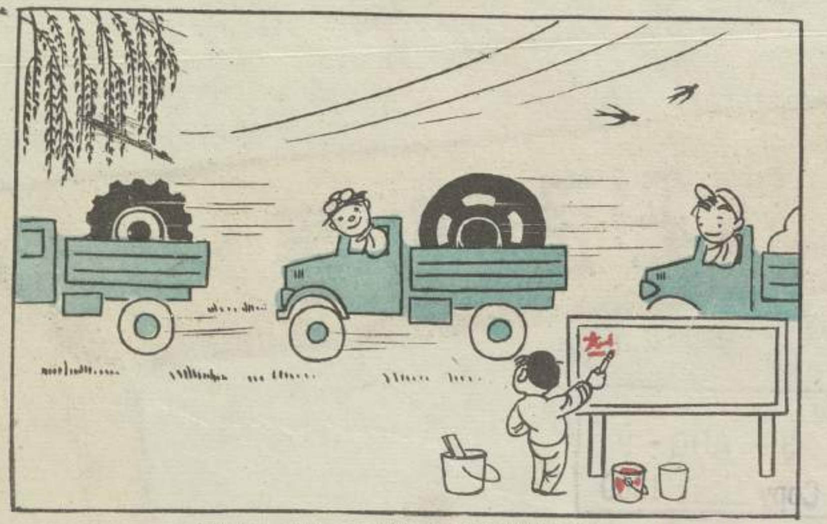
95
2d set

3 - AUG - 9
Copy ______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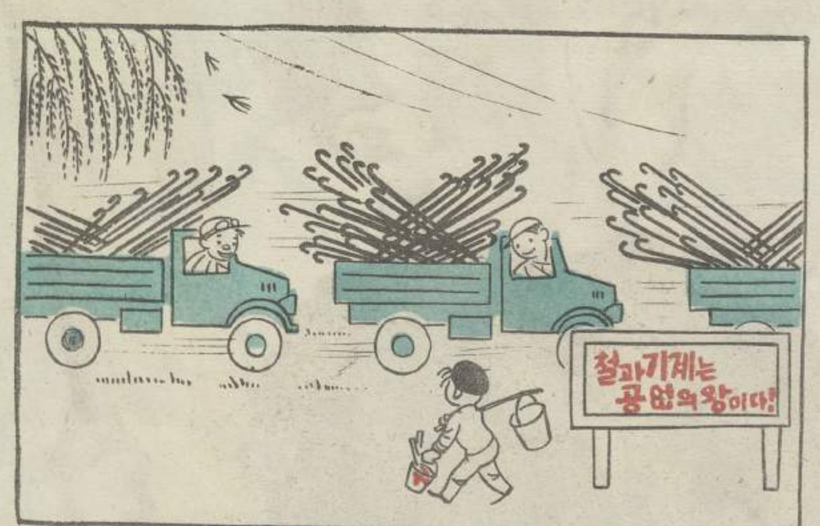
—보다 싶이 어디 손이 비여야 지도를 나가지 않겠소!

백 인균 그림

## 쾌속도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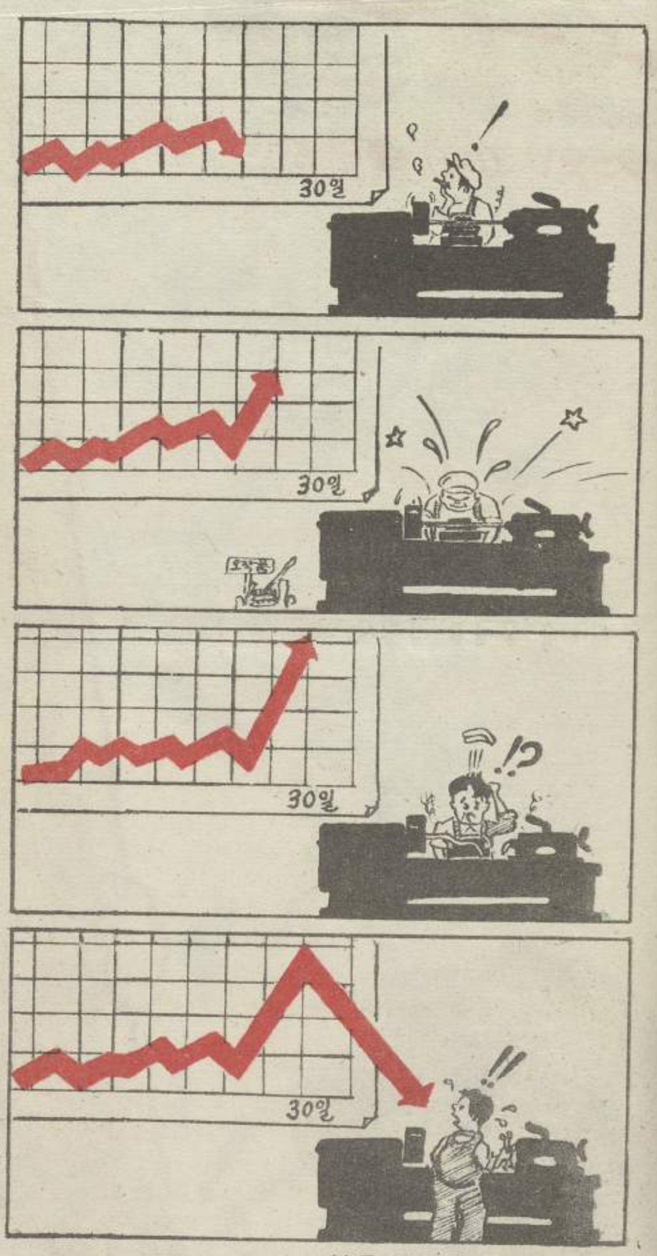

—어디로 가는 기계 설비들인가요?
—새로 건설하는 제강소로 가져갑니다




—어디서 가져오는 철재인가요?
—새로 건설한 제강소에서 가져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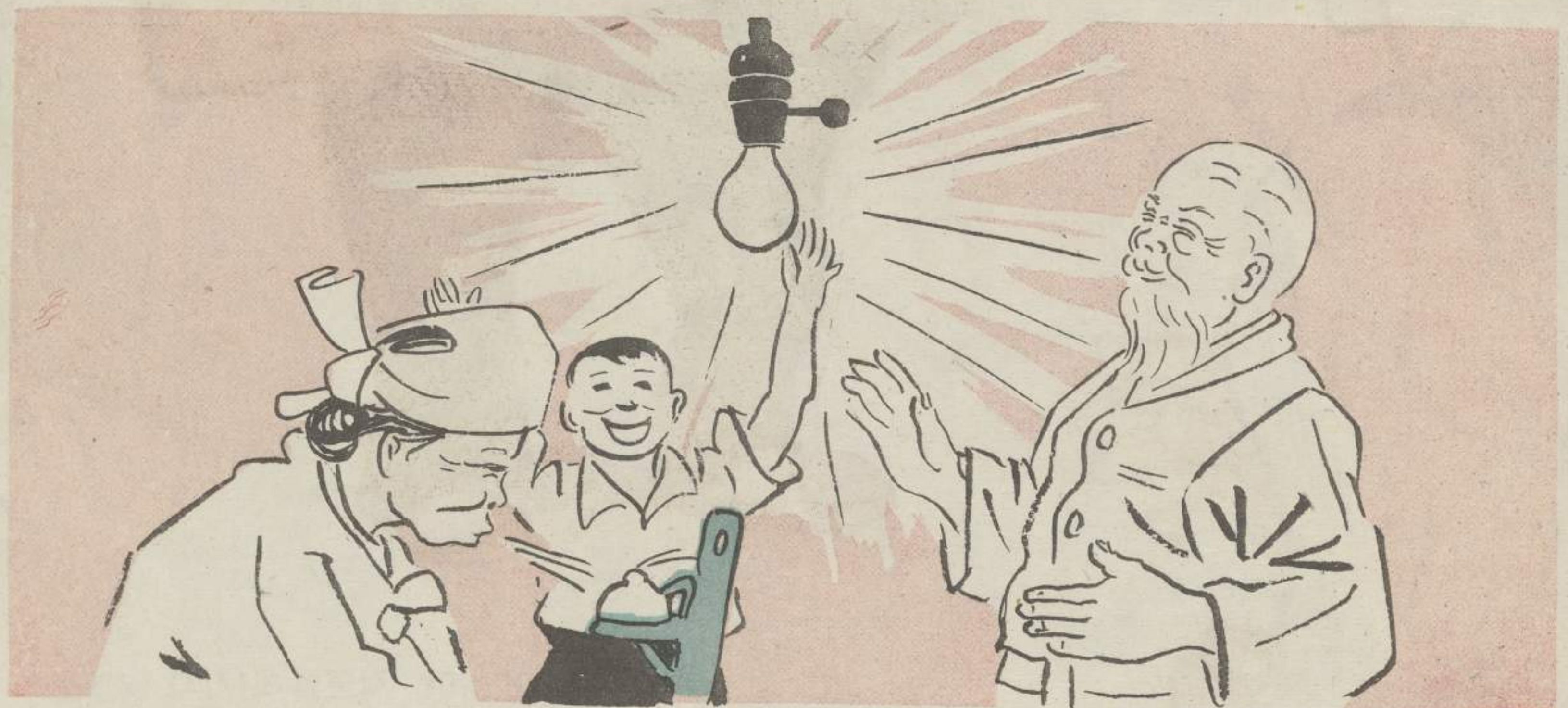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 돌격식 작업




남포 제련소 오 영록 그림

## 두메 산'골에도 전기가 왔다



평북 운전군 룡창 농업 협동 조합 로 준성 그림



# 간판만 농산물 상점

인민 학교 1학년 선생님이 하루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어떤 것을 농산물이라고 합니까?》

학생들이 일어서서 차례로 대답했다.

《쌀, 옥수수, 밀, 무, 배추, 감자들입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그 밖에 파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콩도 심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합에는 사과나무도 많습니다》

×

영유읍 농산물 상점에 저자 바구니를 든 한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그 때 그 상점에는 소금을 사는 할머니 한분이 있었을 뿐이고 다른 손님은 없었다.

아주머니는 상점을 휘— 둘러 보더니 물었다.

《무, 배추는 없습니까?》

판매원은 이상한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살펴 보더니

《어디 타곳에서 오셨나요?》하고 오히려 되물었다.

판매원의 말에 의하면 이곳 주민들은 겨우내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먹기 때문에 무, 배추를 갖다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 농산물 상점에서 겨우내 채소를 팔아본 적이 없고 사과나무에 둘러 싸인 읍이건만 사과도 사기 힘들다.

장날이 되였다. 타곳에서 오지않은 바로 이곳 읍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무, 배추, 계란들을 한 아름씩 사가지고 간다. 다음 장날까지 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농산물이란 무엇인가 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 이 농산물 상점에서 팔고 있는 물품의 이름만 들어 대답한다면 인민 학교 1학년에서도 2점 받기조차 대단히 어려울 것은 사실이다.

김 상애

## 높이 추어 주고 높은데 올려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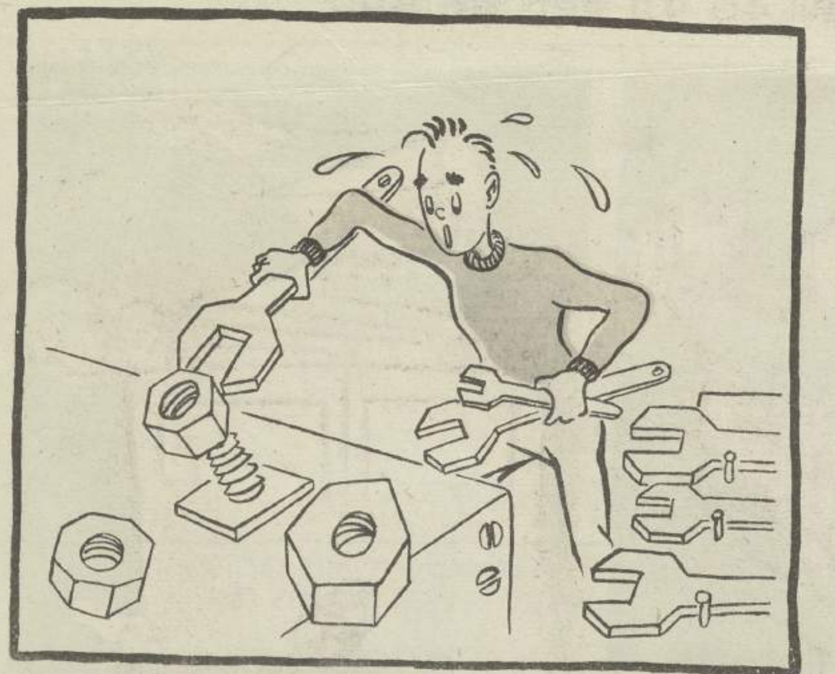
조 명식 그림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안한 선진 작업 방법들을 일반화 하는 사업이 매우 굼뜨게 진행되고있다.

## 경험주의자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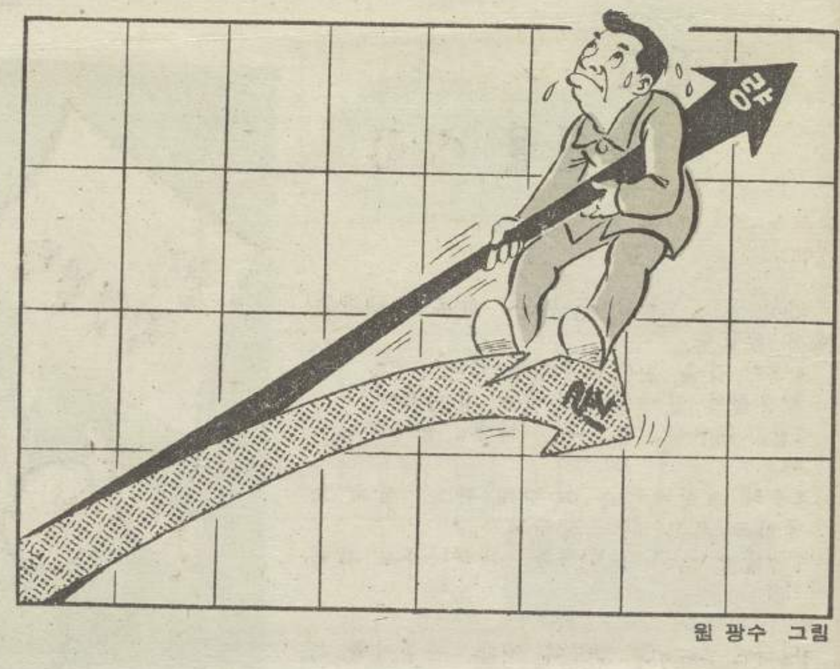
황북 도시 설계 연구소 리 주의 그림

### 나트 열개에 스파나가 열개 있어야 하는가?



북중 기계 공장에서는 나트를 표준 규격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기업소들에서는 스파나에 맞지 않아서 지장을 받고있다.

최 영근 그림




원 광수 그림

# 사죄의 말씀

독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소들이 화살 편집부로 들어 왔다.

《모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문들에서 비상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으며 많은 제품들의 질이 전보다 썩 좋아지고 있는 이때에 평양 연초 공장의 담배에는 요즘에 특히 꽁다리 (엽연초의 줄거리) 가섞인 것이 더 많아졌으니 웬 일인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신소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신랄한 질책도 섞여 있었다.

《화살 편집부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는가? 요즘에 와서 담배에 꽁다리가 더 섞이는 현상을 왜 비판하지 않는가?》

이상의 신소들에 기초하여 화살 편집 집단은 이 문제를 토의한 후 화살 편집 성원의 절대 다수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따라서 전기 신소들의 내용에 대하여 일찍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비판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솔직히 자기 비판하였다.

이와 아울러 본사에 서한을 보내 주신 독자들을 비롯하여 전체 독자 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 환영 받지 못하는 제품

미술 대학 전문부 오 한석 그림

함흥시 미술 협동조합 장 현채 그림

함흥시 미술 협동조합 장 현채 그림



# 둘러대기 선수들

화장품의 질이 낮다고 신소들을 읽은 신의주 화장품 공장 지배인은 기술 지도원과 실험실장을 불렀다.

《또 비누가 "거품이 안난다„ "물렁물렁하다„ "껍진껍진 하다„하구 신소들이 들어왔소. 어떻게 개선 대책이 없소! 참 골치가 아파 못견디겠소》

《………》

《실험실에선 대체 뭘 하우. 왜 화장비누의 좋은 대용 원료 하나 연구해 내지 못 하우? 기술에 대한 신비성을 버리고 좀 적극적으로 달려 붙어 보란 말이요》

이렇게 이 공장에서 제품의 질이 나쁘다는 비판을 받거나 오작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지배인은 기술 지도원과 실험실장을 번질나게 불러다가 추궁을 하는 것으로 질 제고 대책을 다 세웠거니 생각했다. 그것은 제품의 질 제고는 전체 군중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고 다만 기술 일'군들만이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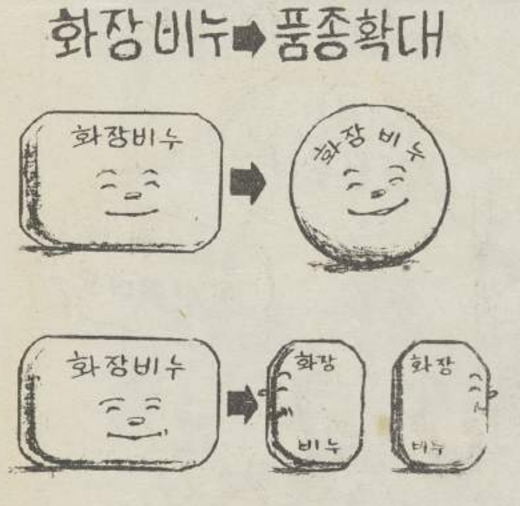
이렇게 질 제고 운동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진행하지 않아서 제품들의 질은 여전히 제고되지 못했고 그리하여 신소들은 계속 련달아 들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 일'군들에게만 매달리고 있는 지배인은 또 기술 지도원과 실험실장을 불러왔다.

《화장 비누의 질이 나쁘다고 계속 신소가 들어 오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소》

실험실장은

《지금 쓰는 원료 가지고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질을 높일려면 무슨 재료도 요구되고 무슨 재료도 요구되고 하면서 곤난 하다는 것을 내놓았다. 지금 쓰고 있는 원료도 공정을 개선하여 더 잘 정제하고 표준 조작법들을 잘 준수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인은 기술 일'군들의 이런 옳지 않은 견해를 고쳐 줄 대신에 《야단 났군 질을 제고 할래도 자재가 해결돼야지》하고 기술자들의 그릇된 의견에 동감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출하 도매소에서는 의외에도 전에 없이 좋은 화장품을 인수하게 되였다. 도매소 지배인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공장 지배인을 찾아 갔다.

《지배인 동무 어떻게 된 일이요? 방금 엊그제까지 질을 높이기 힘들다면 화장비누가 갑자기 좋아졌으니 말이요. 자재 문제라고 하더니 좋은 자재가 이젠 해결됐소?》

《원료야 같은 거지요. 오늘 성에서 지도 검열을 내려 온다기에…》

× ×

이 공장의 품종 확대 사업도 소개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 공장에서 많은 시제품을 시제품 전람회에 보내여 27종이 호평을 받았다. 지배인은 매우 흡족했다. 그러나 지배인은 시제품을 많이 올려 보내려고 갖은 창발성을 발휘하던 때와는 달리 호평을 받은 품종들을 생산하는 데는 관심을 적게 돌리였다. 그래서 여전히 품종들은 확대되지 못했다. 그러나 신문들에는 매일 같이 각 공장들에서 품종을 확대하고 있는 기사들이 게재되였다. (이러다간 한 방맹이 얻어 맞겠는 걸)

지배인은 또 기술 지도원과 실험실장을 불렀다.

《다른 공장들에선 매일 같이 새 품종을 생산해 내는데 우리도 몇 개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소》

실험실장이 대답하였다.

《글쎄 품종을 확장하는 건 간단하지 않는데요》

《간단한 방법이 있소. 우선 화장비누 하나 가지고도 동그랗게도 만들고 지금 만드는 것을 절반씩 잘라서 절반만 한 비누도 만들어서라도 품종을 늘굽시다.》

그리하여 시제품이 27종이나 호평 받은 이 공장에서 《새 품종》으로써 동그란 비누, 절반만 한 비누 등이 나가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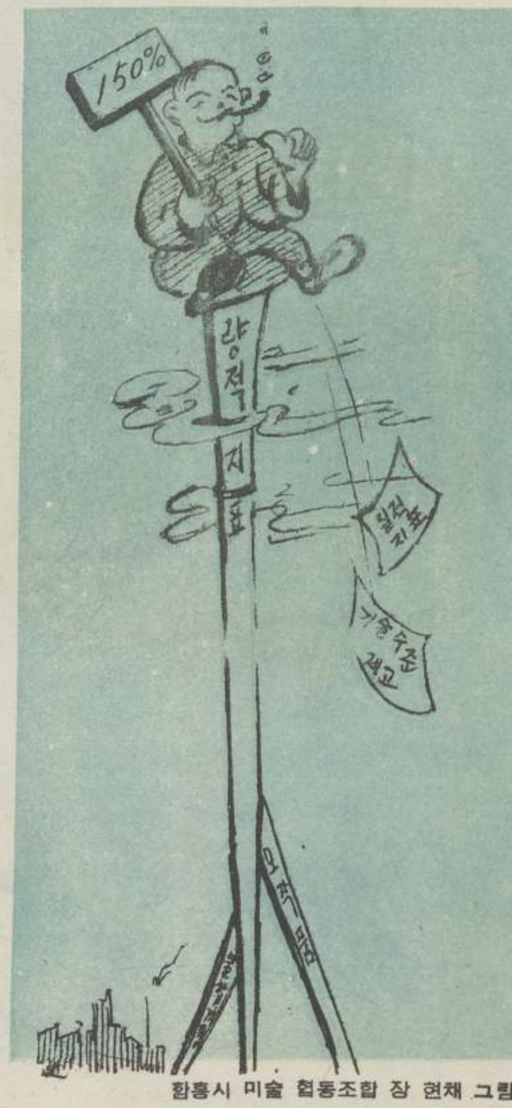
리 운봉

### 견본은 좋건만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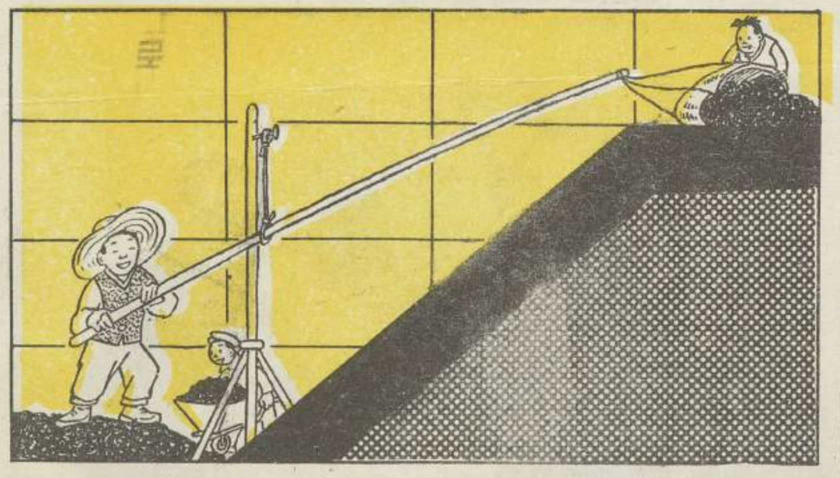
일부 식료품 생산 협동 조합에서는 계약된대로 제품의 질을 보장 하지 않고있다.

### 량적 달성을 오작품이 보장했다




함흥시 미술 협동조합 장 현채 그림

머리로 해결했고



등짐으로 해결했다

원 광수 그림

# 특제품과 막구두

평양 피혁 공장에서 나오는 가죽구두가 〈모양이 보기 싫다.〉 〈잘 이겨지지 않아 가죽이 꽛꽛하다.〉〈광택이 없다.〉〈잘 터진다.〉하고 수요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평양 피혁 공장에서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금년에 들어서서 제품의 질 제고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자 이 공장에서는 특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특제품 구두는 과연 그전 구두를 만들어 내던 그 사람들이 만들어 냈는가 싶게 모양 있고 광택이 나고 잘 이겨져 부드럽고 견고하였다. 그러나 다량으로 생산하는 구두는 되는 대로 만들었다. 가죽이 광택이 나고, 부드럽고 견고하려면 제혁 공정에서 탈지 (가죽의 기름을 빼는 것)와 제유 (가죽을 이기는 것)를 잘 해야 함에도, 탈지도 잘 되지 않은 피혁을 물에서 꺼내서는 제유도 대강 하고 제화 공정에 넘긴다. 제화 공정에서도, 이까짓 나쁜 가죽 잘 만들면 뭘 해, 하고 생각하는 셈인지 형도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신에서 겁을 빼 버린다. 가죽의 주름을 펴기 위해서는 겁을 치고 망치질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망치질 한번 하면 하루 더 신는다는 말까지 있다. 그렇지만 량만을 뽑을 생각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망치질을 한번 더 할 생각이 있겠는가? 사실대로 말하면 바빠서 (량을 올리기에) 그럴 사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배인은 질을 제고하라는 구호를 불러 놓고는 사무실에서 책상만 지키고 있다. 로동자들의 기능을 높이는 사업을 하는 등 마는 등 한데서 30%나 되는 신입 로동자들이 들어온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구두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찌그러진 신발을 만들고 있는 것도, 가죽을 완전히 탈지하려면 며칠이 걸리는가 하는, 피혁의 질을 높이는데 극히 필요한 (그러나 또 극히 쉽게 알 수 있는) 기본적 조작상의 표준도 없이 일하는 것도 내 알바 아니란 듯이 사무실에 앉아서 구호를 불렀으니 질이 좋아지겠지 하고 나날을 보내였다. 결과 다량 생산되는 구두는 마치 먹칠을 한것처럼 광택이 없고 쭈그러지고 주저 앉고 한, 그야말로 별의별 모양의 (여러가지 품종?) 구두까지 상점망으로 나가게 되였다.

그러던 중 지배인은 평양 백화점 5층에 있는 성 산하 공장들의 시제품 품평회에 간 일이 있었다. 그의 공장에서 출품한 제품들도 호평을 받고 있다. 지배인은 저으기 만족했다. 자기 공장 제품이 호평을 받고 있으니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진렬대 앞에서 한 손님과 진렬장 관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벌어졌다.

《이 구두를 한 켤레 파십쇼.》

《이건 팔지 않는 거예요. 2층 매대에 가시면 이런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서 사십쇼.》

《2층 매대의 것은 사서 신고 싶지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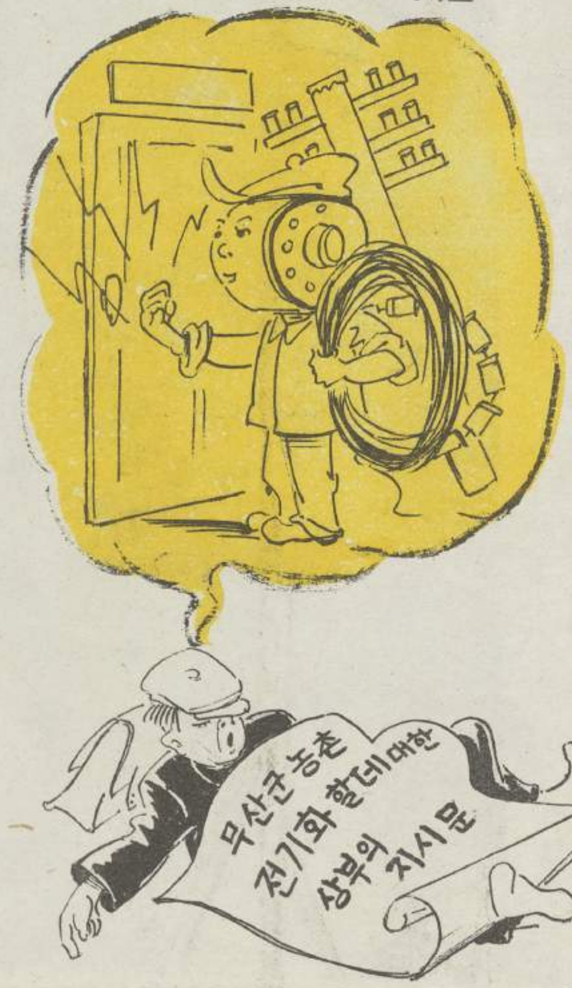
《그래도 여기 것은 안파는 거예요.》

《안팔 구두는 잘 만들고 팔 구두는 되는 대로 만드니 평양 피혁 공장에서는 인민들이 구두를 신으라고 만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꽃 같이 두고 구경만 하라고 구두를 만듭니까?.》

손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자 지배인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 군중들 속에 숨어 버리고 말았다.

리 운봉

무산군에서의 전기화 사업




무산군 지도 일'군들은 농촌 발전소를 건설 할데 대한 월별 계획도 수립 하지 않고있다.

허 능택 그림

새벽 보초

평양시 북구역 룡흥 윤 평중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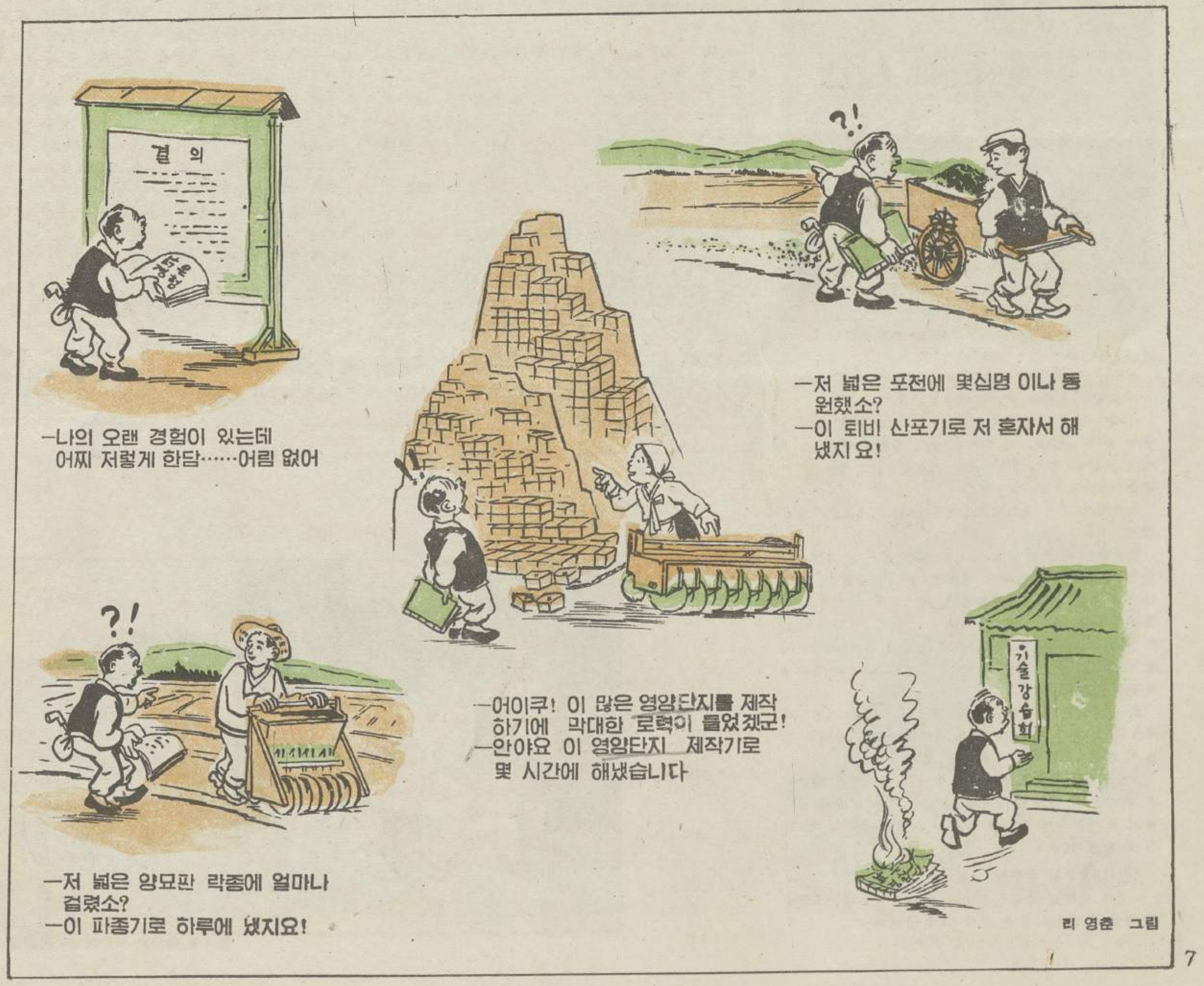
수'자는 채워 놓았는데…

—이 놈의 송아지야! 어디로 달아 나느냐 너도 젖소 명단에 올렸는데
—젖 먹으러 가요

허 능택 그림

함북도 영안군 신양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확보 해 놓은 젖소 12두중 8두가 송아지고 나머지 4두는 젖소로 사용 할 수 없는 늙다리 소들이다.

낡은 경험으로는 잴수 없다




—나의 오랜 경험이 있는데 어찌 저렇게 한담……어림 없어

—저 넓은 포전에 몇십명 이나 동원했소?
—이 퇴비 산포기로 저 혼자서 해 냈지요!

—어이쿠! 이 많은 영양단지를 제작 하기에 막대한 로력이 들었겠군!
—안야요 이 영양단지 제작기로 몇 시간에 해냈습니다

—저 넓은 양묘판 락종에 얼마나 걸렸소?
—이 파종기로 하루에 냈지요!

리 영춘 그림

## 까마귀와의 상봉

—웬 까마귀냐!
—난 또 우리 친구인줄 알았지

평양시 북구역 북수동 조 정만 그림

## 삼층 옷

—옷이 많다는것은 알겠는데
—보긴 싫군

남포 유리 공장 김 대권 그림

# 숨 가쁜 위생 문화 사업

평원군 보건부장 동무는 바쁘셔서 흔히는 늘 자리를 비우군 하신다. 그래서 지도원 동무는 더욱 분주하다.

찾아 오는 손님들을 대해야 했으며 하부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보고들을 정리하고 통계도 장악해야 했고 또 상부에 보내야 할 보고도 작성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가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군 해서 더욱 지도원의 사업을 바쁘게 할 때가 있다.

3월 19일 아침이였다. 읍내 인민 반장들을 모아 청소 조직을 해야 했던 것이다.

급작 지시를 받은 읍내 몇몇 반장들이 모여 왔다.

지도원은 부탁이나 하듯이

—야단 났소. 중앙에서 또 우리 군의 위생 문화 사업을 보러 오셨소. 동무들은 속히 돌아가서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 해야겠소. 그렇치 않고서는 또 비판을 받게 될거요 자, 어서……

이리하여 모여 왔던 반장들은 급한 걸음으로 돌아갔다.

반장들은 분주히 뛰여 다니게 되였고 이집 저집에서 방안의 먼지를 털어 내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인민위원회 사택마을과 임경소 사택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우물 둘레의 콩크리트 바닥이 산산히 깨져서 그 틈으로 해서 물이 우물로 다시 스며들어 갈 수 있었으나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 관심을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군 인민위원회 사택 마을의 변소들 중에는 지은 이때로 문을 달아 본 일이 없고 아래도 막아 본 일이 없는 것들도 있었지만 개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즉 군 인민 위원회 간부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길 옆에도 이처럼 개방된 공동 변소가 있지만 문을 달라거나 아래를 둘러 막으라고 충고를 한 일은 물론 없다.

지도원 동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군에는 목욕탕이 모두 100개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64개 입니다.

그렇다면 한개 리에서 2개나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된다.

—그렇구 말구요. 한 리에 뭐 서너개씩은 운영되고 있답니다.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읍에 회의 하려 온 매전리 선전실장 동무는 왔던 김이니 오랫만에 목욕이나 하고 가자고 읍 목욕탕으로 달려 갔고, 덕재리 사는 농민도 아직까지 리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중앙에서 내려 온 동무는 리에 나가 보지 않을 수 없이 됐다.

이런 때에도 지도원은 《빈틈 없이 사업 조직》을 했다. 어느 리에도 전화가 있으니까?

중앙에서 나온 동무가 월일리 동마루에 올라 섰을 때 리 인민 위원회 일'군들이 온 동네를 쓸고 있었고 그 한편에서는 모닥불이 붙고 있었다. 그리고 리 위원장 동무는 탁아소에서 쓸 주전자, 세면기, 보모들의 위생복을 만들 옥양목을 사려 조합 상점에로 달려갔다. 참으로 숨가쁘게 진행되는 위생 문화 사업이다.…

목욕탕은? 로피로 지은 목욕탕이 있었다.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무너진 자리만이 남아 있다. 물을 많이 쓰고 증기가 많이 나는 목욕탕을 로피로 지으려는 것 부터가 위생 문화 사업을 형식적으로 해 치우려는 것이지만, 그나마도 또 아주 형식적으로 무책임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목욕 한번 해 보기도 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 인민 위원회에서 《틀림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64개 중에 붙어 있는 목욕탕이다.

십리 상거한 월일리는 멀어서 지도를 못했다 하자. 그러나 위생 지도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특히는 현지 지도를 별로 나가시지 않는 보건부장 동무도 군 인민 위원회 사택 마을 쯤은 현지 지도를 하실 수 있지 않는가?

군 인민 위원회 사택 마을이 읍내에서도 제일 어지러운 곳이란 것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원군 인민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게 꾸리며 위생적이며 문화적으로 살기 위한 사상 동원이 돼 있는 것 같지 않다.

김 상애

## 아침 체조 시간에

평양시 북구역 북수동 조 정만 그림



# 촌극, 어데선가 뵈온기억이…

라 동필

나오는 사람들

경수… 공장 사무원
명희… 공장 로동자
길자… 위생 검열원
곳— 어느 공장

막이 오르면 경수 말끔한 옷차림을 하고 책상에 앉아서 옷을 툭툭 털고 있다.

명희—(등장하며 다급하게) 김 동무, 거 뭐예요? 동무 혼자나 그렇게 쭉—빼고 앉았으면 단줄 아세요? 지금 당장 청소 검열을 나온다는데.

경수—뭐? 또 나와? 오늘이 구손 요일인데?!

명희—요일만 따저가면서 검열을 하나요?

경수—야단 났군! 저 명희 동무, 현장에 나가서

명희—현장 걱정은 마세요. 언제나 깨끗하니까요

경수—그렇게 아니라 지금 교대하구 가는 동무들이 있을텐데 몇 동무 협조 좀 해 달라는거요, 현장에를 다 나가구 사람이 없질 않소.

명희—(상수로 퇴장하며) 사무실에선 왜 이 모양인지 몰라! 언제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경수—차! 막 쳐누나 쳐?? (부산히 돌아간다)

길자—(하수로 등장하며) 수고하십니다.

경수—(처다 보지 않고) 거 날래두 왔군. 동무두, 청소 사업에 한 사람 같이 참가해야 한다는 걸 알지?

길자—(어리둥절해서) 네?!

경수—(먼지 털개를 던져 주며) 자, 동문 먼질 털우, 난 바닥 닦을 물을 길어 올테니

길자—네! (책상 설합을 뺀다. 휴지가 가득이 들어 있다) 휴지통이 어데 있나요?

경수—그건 꽉 닫아 두구 돌아가면서 먼지나 털우, 빨랑빨랑… 차, 이거 바께쓴 어델 갔나?

길자—(설합 안의 휴지들을 책상 우에 꺼내 놓고) 손'가락으로 설합 밑 바닥을 쭉 훑어 본다.) 아이구 이 먼지! 형식주의…

경수—(급히 말을 가로 채며) 아니 동문 협졸 안 오구 시빌 하려 왔소?

길자……

△ 이때 밖에서

소리—김 동무, 수도 주변 좀 나와서 거두세요. 질펑질펑해요.

경수—수돈 하필 왜 거기다 냈소 (밖을 향해)—명희 동무, 거 꽉 틀어 막고 꼭지를 떼 가지구 오우.

소리—물은 어데서 길어다 쓰구요?

경수—딴데서 길어다 쓰라지

길자—그러면 쓰나요, 동무두 물을 길어 오겠다면서…

경수—멀드해도 좀 극복해야지 깨끗하게 하자는 일인데.

길자—(어이기 없어 빤히 처다 보면서) 뭐야요?

경수—뭐라니? 협졸 왔으면 할꺼나 할게지 어째자구 땅땅 맞서우. 엉?

## 이러한 현상은 고칩시다

자강도 김 경덕 그림

미술 대학 조선화 학부 정 영란 그림

△ 이때 명희 등장

명희—(길자를 보고 반가워서) 아이 길자 아니야?!

길자—야 명희로구나, 잘 있언?

명희—그래 어떻게 왔니?

길자—난 뭐 못 올데가?!

명희—그러구 보니 너 청소 검열 왔구나?!

경수—(멍하니 처다 보다가) 아니 이 동문 우리 공장 동무가 아니요?

명희— 군 보건부에 있는 동무야요.

길자—(경수에게) 찾아 뵙지 못해 안 됐습니다.

경수—(어색해서) 글쎄 어데선가 뵈온 기억이 나는데…

명희—(호통조로) 동무?! 거 융화하잔 묘안이요?

경수—아 아니 그런게 아니라…

길자—이젠 현장엘 들어가 봐야겠어, 딴 동무들은 벌써 들어갔는데…

(상수로 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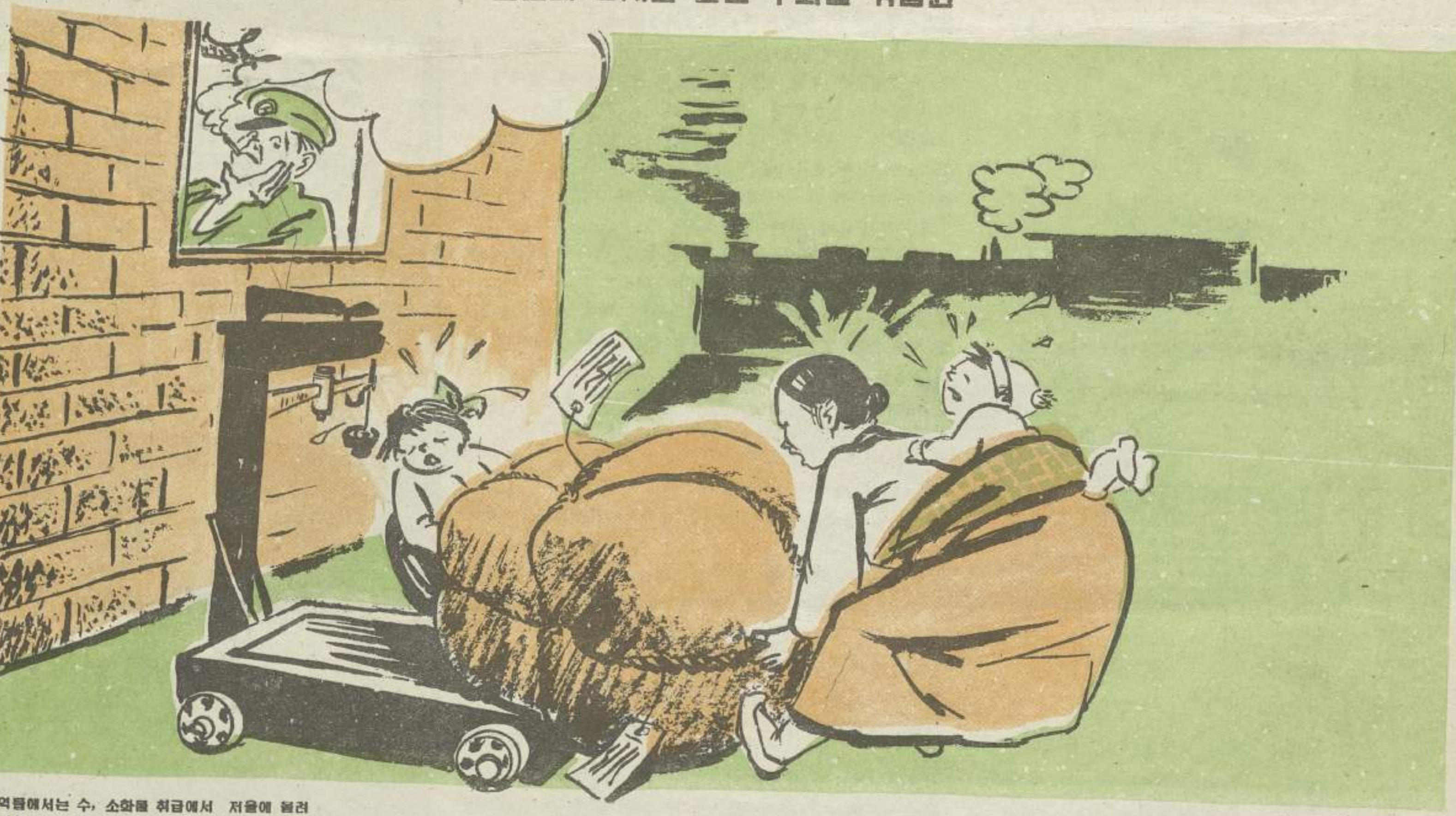
명희—(뒤따라 나가면서 책상 우의 휴지를 가르치며) 김 동무! 거 신사 나리께서 뭐예요? 동무의 걸치장만 말구 사무실의 속치장두 좀 하세요, (휭하니 퇴장)

경수—(무색해서) 거 참 속속들이두 뒤지는군…

(막)

백 인균 그림

## 손님의 봉사를 받는 수화물 취급원



일부 역들에서는 수, 소화물 취급에서 저울에 올려 놓고 원격한 장소까지 운반 하는등 수화물 취급원이 해야 할 일을 손님들에게 시키고있다

조 명식 그림

## 기관 본위주의를 없애자!

구성 광산 기계 공장에서는 기관 본위주의적 경향으로부터 출발하여 협동 생산품인 감속기를 제때에 보장 못해 줌으로써 북중 기계 공장에서 생산되는 기중기 조립에 지장을 주고있다.

기중기—감속기를 빨리 만들어 주시오
지배인—기본 생산도 바쁜데 언제 협동 생산까지 하고 있겠소?

원 광수 그림

## 강재를 절약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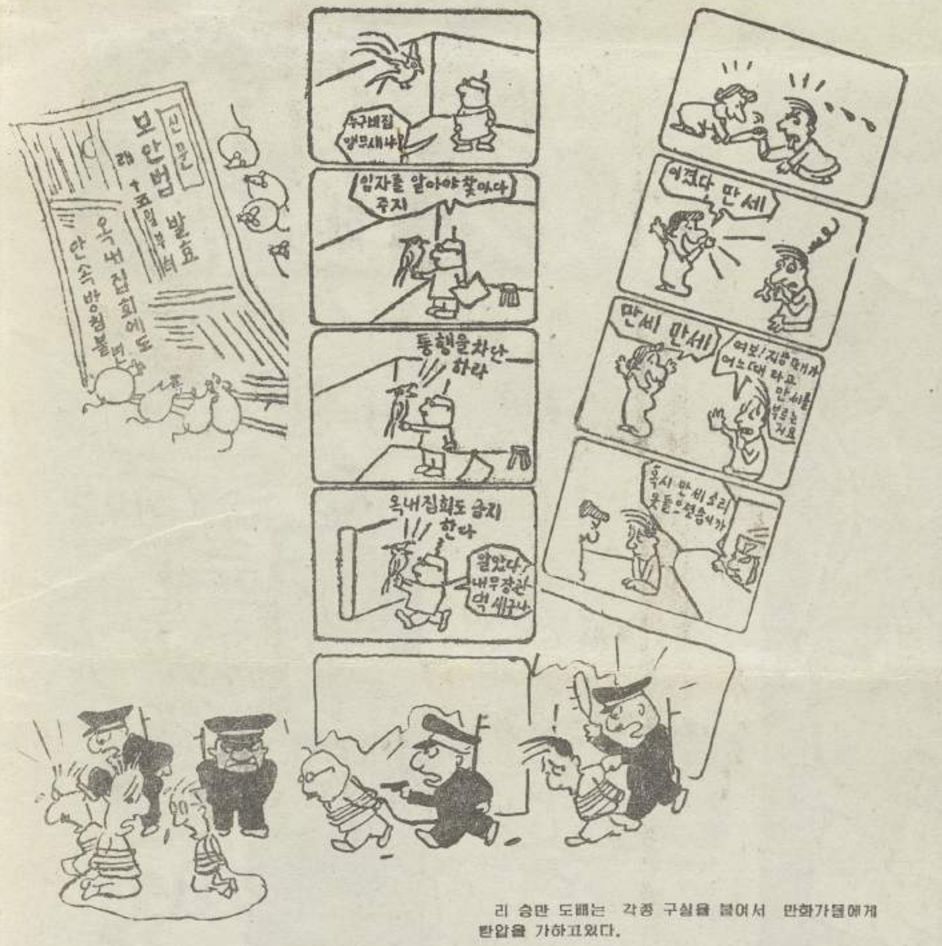
둘이 올려 놓고

혼자서 내려 놓았다

평북 구성 광산 기계 공장 검사부
안 종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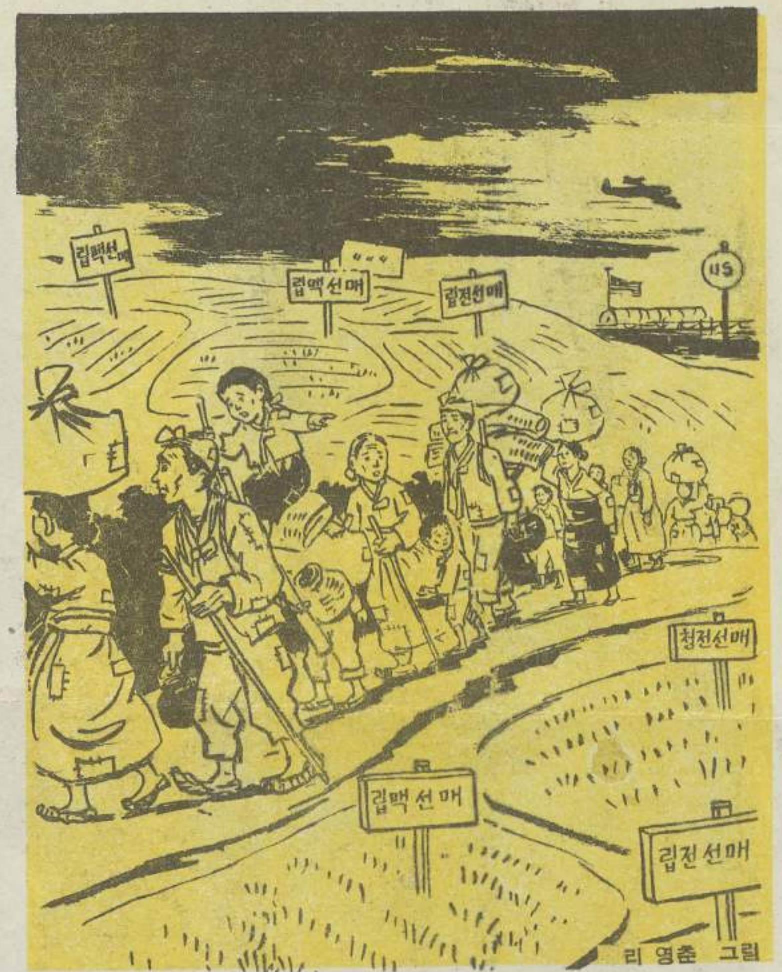
## 괴뢰 경찰 만화계에 출동




리 승만 도배는 각종 구실을 붙여서 만화가들에게 탄압을 가하고있다.

허 농택 그림

## 넘기 힘든 보리'고개




리 영춘 그림

—아버지 왜 사람들이 이고개로 자꾸만 오나요?
—보리'고개를 넘길 수 없어서 이리로 온단다

# 대용식 강습회

신 흥순

리 승만 도배들은 절량 농민들의 구제책의 하나로서 소나 돼지가 먹는 사료 같은 것을 어떻게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궁리한 끝에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대용식 강습회〉 까지 열고 있다니 이야말로 천인 공노 할 일이다.

리 승만이는 늘상 한다는 소리가 《쌀은 외국에 팔고 한국 사람은 잡곡만 먹어야 한다》고 떠벌여 왔다.

그런데 실상 농민들은 지금 잡곡도 아닌 풀 뿌리, 나무 껍질로 연명하여야 할 형편에 처하여 있는 것이다.

괴뢰 정부 농림부에서 다년간 대용식에 대한 연구로 권위가 있다는 박이란 자는 (대용식 장려반)이란 것을 인쇄하여 가지고 경북 어느 농촌에 가서 대용식 강습회를 열고 거기에서 대용식에 대한 사회 정치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예 우리 한국 농촌으로 말하면 대부분 땅이 척박한데 다가 한재 수재가 혹심해서 소출은 적고 그 반면에 인구는 자꾸 늘어 해마다 6~7백 만석의 식량이 부족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 수백만의 절량 농가가 생기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또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고향 땅을 버리고 남부 여대하여 류리 걸식하는 리농민이 날로 늘어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치!》 누구인가 코 웃음을 친다.

사실 남조선 농촌의 빈궁과 령락의 원인은 두 말할 것 없이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반동적인 농민 정책과 전쟁에 따르는 몰렴치한 착취와 수탈에 기인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노릇인데 〈한재 수재〉니 〈인구 격증〉이니 하고 떠벌리고 있으니 될 말인가?

《자 그중에는 배'심 좋게도 비료대를 떼 먹고 떠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렴치하게도 세금까지 못다 물고 굶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요. 심지어는 외상으로 준 감자 종자까지 다 먹고 온 집안이 자살을 했으니 그 돈을 어디가서 받아 냅니까? 그러니 나라 일이 잘 돼 나갈 리 있습니까? 이게 다 따져 보면 배가 고픈 탓입니다. 배만 불려 놓면 만사 해결일겝니다. 옛적부터도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만승 천자라도 식이 위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쌀이 없는데 어떻게 배부를 수 있느냐? 있다! 어떻게? 그것은 대용식 입니다. 그전엔 대용식이라면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이였지만 그건 지금 와서는 주식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대용식이라는 건 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풀을 먹고 살아 왔습니다》

《여보 그걸 말따우라고 하우? 우주 로케트가 달나라로 가는 문명 시대에 사람을 뭐 원시 인간보다도 더한 야생 인간으로 퇴보시킬 작정이요?》

한 젊은 사람이 톡 쏘아 붙인다.

《허어, 그럼 따져 봅시다. 밥에 김치 짠지를 먹는다고 칩시다. 그게 뭔지 모르십니까? 배추는 풀이요, 무는 풀 뿌리요. 쌀은 풀의 씨가 아닙니까? 누구도 돌 멍어리나 쇠 고치를 먹고 사는 사람은 없죠? 역시 풀이란 말씀이야!》

별 소리 다 듣는다는 듯이 웅성거린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인 이상 풀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처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용식을 많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만치 의의를 설명하고는 실무 강습으로 들어가서 칡뿌리 먹는 법으로부터, 송기, 쑥, 감자순, 물구지, 솔잎, 먹는 법을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시우 그런 건 우리들한테 배워 가지고 가시우!》하고 한 로인이 타박을 한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자기가 여태껏 연구한 2백 3십여 가지를 죄다 털어 놓았다.

《해방 이후 우린 그런 걸로 살아 왔쇠다! 당신 겨 먹는 법을 아우?》

《알구 말구요. 정미소에서 나오는 등겨는 참 영양 가치가 많습니다》 그는 냉큼 대답하였다.

《등겨가 아니라 겉게 말요!》

《아니 겉 겨야 어떻게 먹는단 말이요? 원》

《후! 어떻게 된 놈의 세상인지 우린 그 걸 빻아서 먹구 사오!》

이 말을 들은 그는 두 손을 빗작 들고 보따리를 쌓았다.

어름이 풀리고 새 싹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은 왔건만 기아와 빈궁이 휘몰아 치는 남조선 농촌에는 춘궁에 신음하는 절량 농민들이 초근 목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 《잡아라!》 —남조선 경찰 일기—

최 영근 그림

쏘련 "끄로꼬질"에서 전재
에피모브 그림

## 대포밥 수색중

## 그래도 손이 닿지 않는다

평양시 동구역 대흥동 김 진호 그림

# 《사바사바 교육》 —《궁한 교육》

오 홍택

남조선의 학교들에서는 4월을 《추수기》라고 부른다. 사실상 남조선 학교들에서 3.4월에 한몫 벌지 못하면 학교의 존망 여부는 물론이요. 교주나 교장들의 년 수입이 이 시기에 결정되는 것이다. 《교육세》라고 이름을 붙이고 인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돈은 《복진》 소동 비용과 탐관 오리들의 술값으로 몽땅 털어 먹고 학교에 나가는건 잡부금과 공납금을 걸어 들이라는 《지시서》 뿐이다.

이래서 3.4월이 되면 학교는 무척 바빠지고 때로는 흥성거리기까지도 한다.

《뒤'문 입학》과 사바사바가 성행되여 《후원회 회장》이라는 뚜로카는 료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게 된다.

## 제 1 경

두 신사가 료정에 들어갔다. 하나는 《한국 무역회사 리사장》이란 명함을 내밀고 하나는 모 대학 《후원 회장》이란 명함을 내 밀었다.

두 사람은 눈이 맞아 흉물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거래를 시작한다는 듯이다.

《회장 어른 한잔 드시구려 서로 다 아는 처진데요》

《허허 리사장 어른은 본래 솜씨 있다는 명성을 들었습니다. 자 한잔》

《근데 회장 어른 시작합시다. 뭐 료통하는 일인데 체면 차릴거야 있소》

《해해 리사장 어른 같은 분이야 좀 푸지게 써야죠. 물을거 있어요》

《허 거참 역시 교육 사업을 하셔서 그런가요. 뭐 치안국 나리들도 로골적으로 내 놓는 판인데요》

《그럼 다섯장만 쓰시구려》

《50만환! 좀 과하지 않소. 넉장 하지요》

《아. 리사장 어른이야 한 배만 하면 몇 백장이 나오는 판인데 자제분의 교육비에 인색할 필요야 있소. 우린 다섯장으루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구 백장이 나온들 뭘 합니까. 우에는 장관으로부터 세관 경찰 합해서 적어두 백여명의 입을 틀어 막아야 하니 남는게 뭐가 있어요. 요전에두 홍콩에서 한배 실었는데 수지두 못 맞췄소》

《뭘 우는 소릴 합니까 돈 대가리가 크지 않소》

《흥. 회장 어른은 허가 맡은 안전한 수입조를 따지지만 내야 어데 목숨을 걸구 하는 판이 아니요 무역이란 건 소문만 컸지 먹을 알은 회장 어른만 못하다오》

《리사장 어른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큰 《구찌》가 이 모양이니…그럼 넉장만 쓰시우. 자제분이 학교에 들어 온 후일도 봐야죠 해 해》

《그럼 두장만 쓰구 회장 어른께 한장 올릴테니 다음 한 때 하면 또 봅시다. 자 한잔》

《해헤 감사하외다. 예상보다 적은 데요. 히히히》

두 뚜로카의 흥정은 끝났다. 이래서 밀무역 뚜로카의 아들은 4월부터 뻐젓한 《대학생》이 되였다. 이것은 보통 있는 흥정이다.

## 제 2 경

이번엔 《국민 학교》 교실에 가 보자.

선생이 괴뢰 정부의 《의무 교육제 실시 6개년 계획》에 대하여 어린 학생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다. 한 학생이 물었다.

《그럼 의무 교육제란 뭔가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거요》

《근데 우리 마을엔 학교 다니는 아이 보다 못다니는 애들이 더 많아요》

《걔들은 사친회비를 비롯해서 공납금을 물지 못해서 학교에 못 오는거지》

《그럼 의무 교육제란 돈만 있으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래 누구든지 공납금과 필요한 돈만 내면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학도 의무 교육제 구만요?》

《대학 의무 교육제라니?》

《돈만 있으면 사바사바 뒤'문 입학으루 누구든지 대학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은 대답에 궁하였다. 리 승만 도배는 남조선에서 《국민 학교》 《의무 교육제》를 실시한다고 《6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몇년 째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돈 없는 학생들은 학교 문전에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그들 식으로 말하면 《의무 장관제》까지도 실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사바사바로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 재 3 경

《국민 학교》 산수 시간

선생이 물었다. 《열개를 셋으로 나누면 몇이 됩니까?》

《셋하구 하나 남습니다》

《틀렸습니다. 넷입니다》

선생은 다시 물었다.

《어째서 넷이 됩니까?》

《셋이 되구 하나 남은 것은 4사5입 하면 넷이 됩니다》

《나머지가 하난데두 4사5입이 됩니까?》

《우리 형님이 그러는데 국회선 그렇게 했기 때문에 4사5입 국회라 한다는 데요》

선생은 이 경우에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조선 교육을 그 곳의 한 신문은 《사바사바》 교육이라 했고 또 다른 신문은 《궁한 교육》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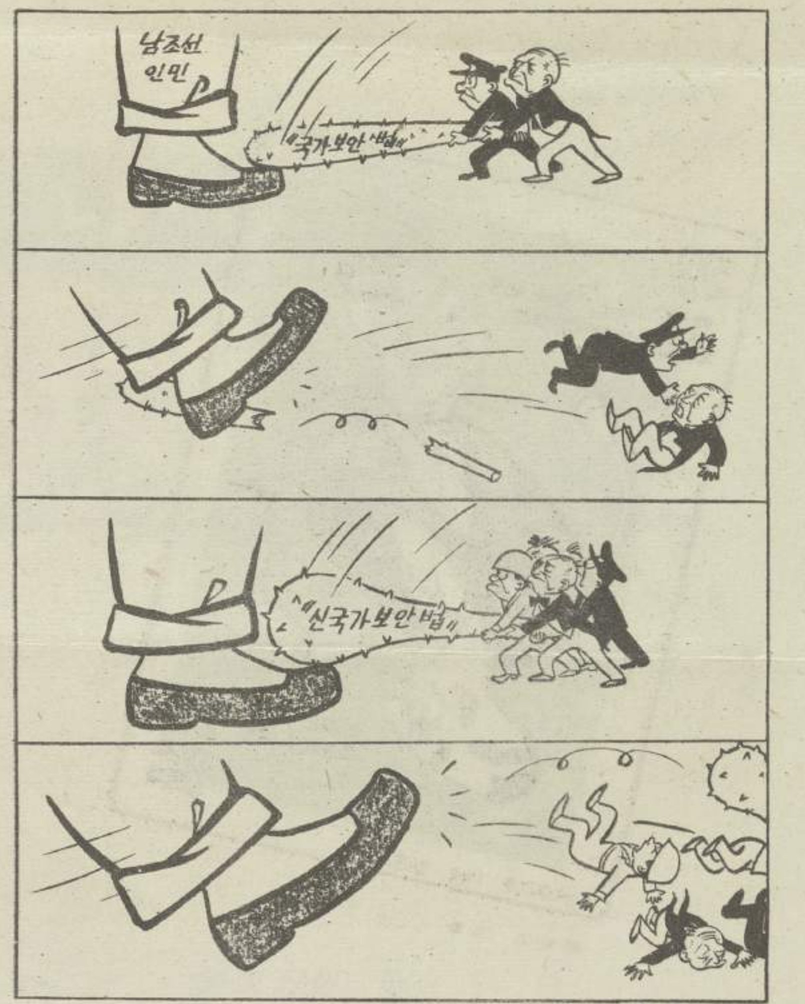
사회가 썩을대로 썩어 고린내를 풍기니 선생분인들 제대로 말할 수 없으며 대답에 궁할 때가 흔히 있다.



## 입학기 풍경

백 인균 그림

## 때릴 수록 커진다




원 광수 그림

## 풀

몇 해만에 처음으로 작년엔 덕삼이네 동네에 풍년이 들었다. 그러나 《토지 수득세》니 《농지 상환곡》이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량곡을 몽땅 떼우고 나서 덕삼이네는 겨울 동안 굶주려 왔다. 그러니까 지주 김주사네 집에서 반작으로 가져다 기르면 소도 물론 굶을 수 밖에…

봄이 되자 사람들은 더 여위고 뼈만 앙상해졌거나 혹은 부황증으로 누르퉁퉁부어 올랐다. 그러나 소는 동이 펑퍼짐 해지기 시작했다. 봄철부터는 사람들이나 소가 다 풀을 뜯어 먹기 시작한 것인데 결과는 사람과 소가 같을 수 없었다.

열두 살 나는 소년인 덕삼이는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소는 참 탐스럽게 풀을 뜯고 있다. 먹음직스럽게도 씹고 있다! 덕삼의 배에서는 꼬루룩 소리가 났다.

덕삼이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사람두 저 소 처럼 아무 풀이나 저렇게 마구 뜯어 먹구두 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먹는 풀만 골라서 뜯어 먹어두…》

덕삼의 배에서는 꼬루룩 소리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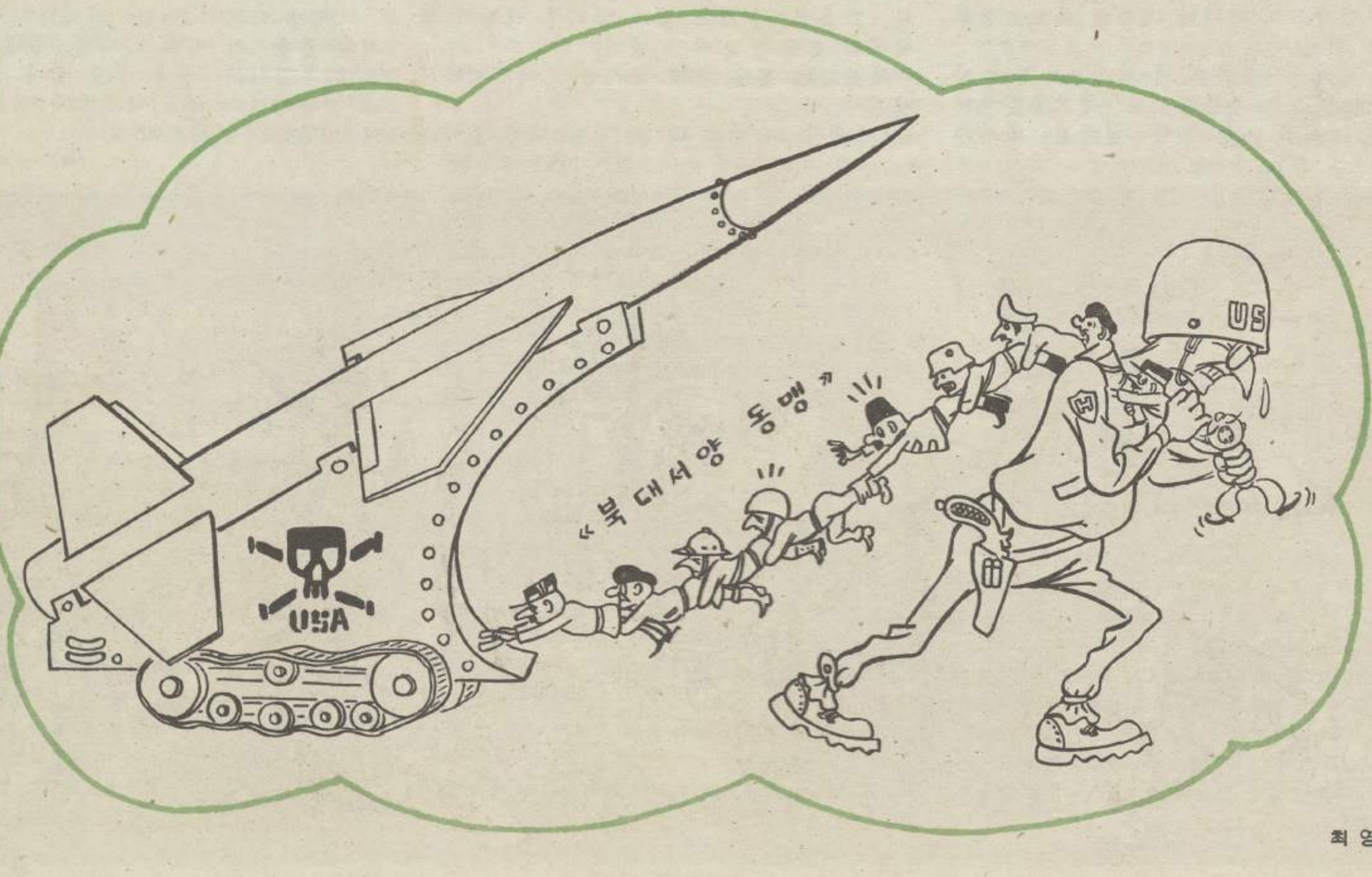
덕삼이 아버지는 굶주린 아들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서더니 타이른다.

〈얘야 어리석은 말 말아라. 사람이 소처럼 풀을 잘 먹게 된다면, 놈들이 풀인들 그냥 두겠니?! 풀두 몽땅 뺏어 갈게 아니냐?! 차라리 소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 그것만도 다행이다…〉

홍 종호 그림

최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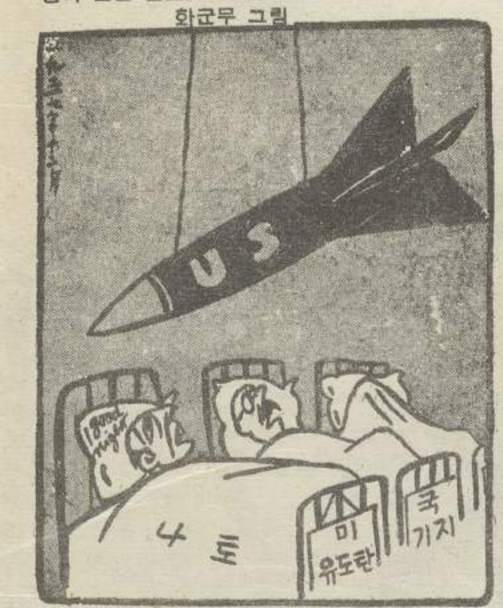
허 능택 그림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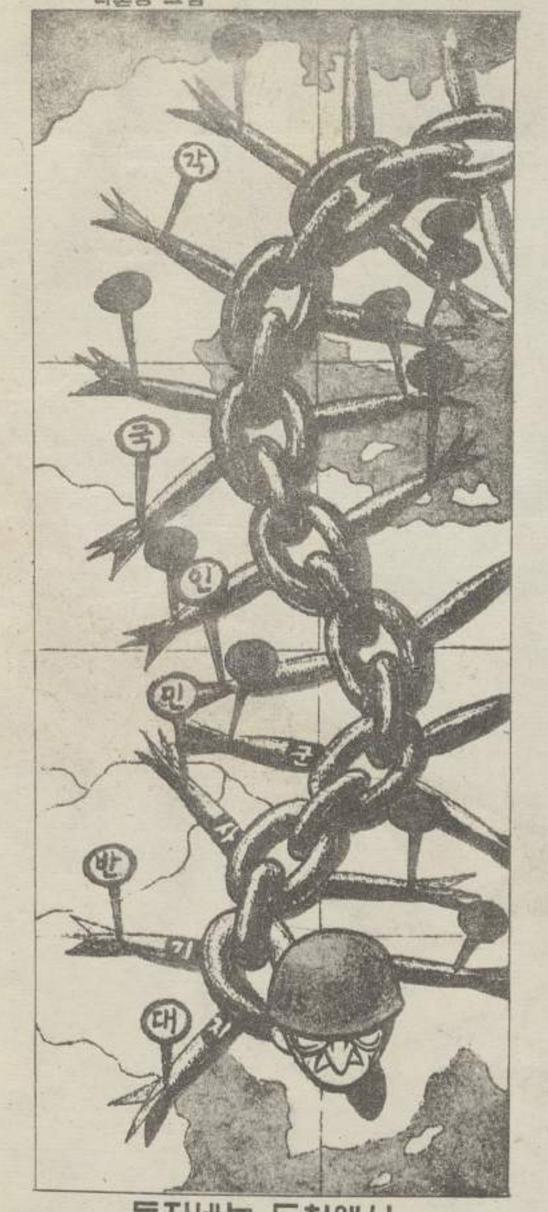
중국"인민 일보"에서 전재
화군무 그림




안녕히 주무십쇼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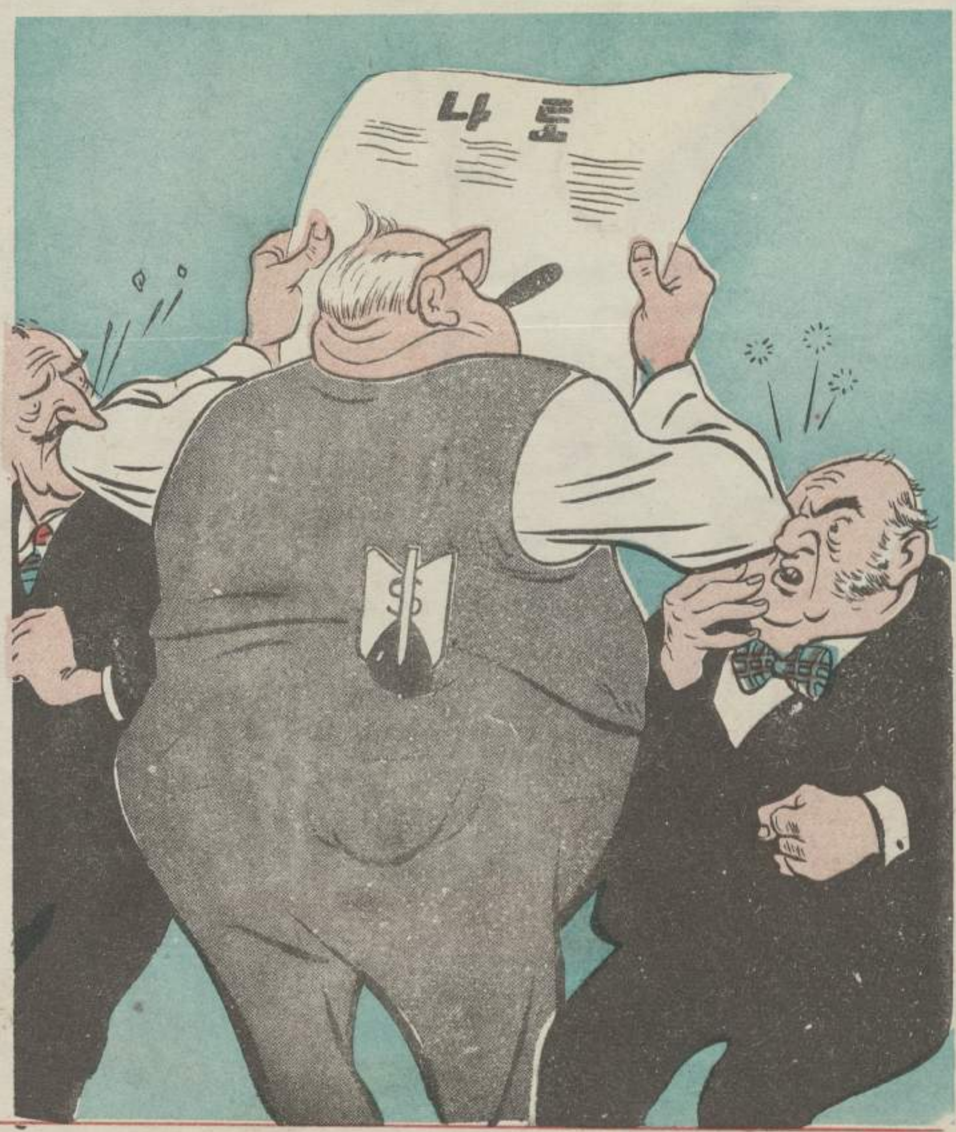
중국"만화"에서 전재
리촌송 그림



독지네는 도처에서
곤난을 당하고있다

쏘련"끄로꼬질"에서 전재"
에피모브 그림

팔꿈치의 정






편집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ㄱ—14280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9. 4. 22 (값50전)

## 침략의 발판

조 명식 그림